□ 중국 경제 성장의 위기와 기회 요인

1.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

○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발전과 한중간 무역 및 투자의 증가로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무역) 한중 무역의 급신장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
  · 한중 무역 규모가 1990년 28.5억 달러(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2003년 579.4억 달러(同 15.5%)로 확대
  · 특히, 2003년 수출은 전년비 50.3% 증가한 357억 달러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 134.6억 달러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6.6%를 차지
  · 이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최근 3년간 연평균 8.2%)과 이에 따른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최근 3년간 총 23.1% 증가) 덕분임

- (투자)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0년 14.9억 달러에서 2003년 44.9억 달러로 급증함으로써, 투자 비중이 12.6%에서 37.0%로 확대
  · 2003년중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홍콩(177.0억 달러)과 일본(50.5억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고, 증가율에 있어서도 세계 전체의 월평균 대중 투자 증가율 0.6%의 10배가 넘는 60.9%에 달함
  · 이는 국내의 고임금과 인력난,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비롯하여, 높은 투자 수익률과 세제·인프라 지원 등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에 기인

2. 중국 경제 성장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발전은 한국 경제에게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의 이중적 측면이 존재함

- (기회 요인) 중국 경제의 고성장 전망과 소비의 고급화,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제화와 개방화 확대 등은 한국 경제에게 긍정적 효과 기대
  · (거대 시장 제공) 향후 10~15년간 7% 이상의 고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세계은행과 미국 CIA에 의하면, 2020년 중국의 구매력은 20조 달러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2003년 1/4~3/4분기 기준으로, 대중 무역과 투자는 한국 경제에 36.4%의 성장 기여율과 58.5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HRI 분석)
· (소비 구조 변화) 소비 시장 확대는 물론, 소비 구조가 더욱 다양화·고급화됨으로써 주택, 승용차 등의 내구소비재 시장이 확대될 전망
· 특히, 교육과 보건·문화·오락 등에 대한 소비 지출 확대와 함께,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소황제 시장'과 노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실버 산업'도 급속한 신장세가 예상
· (시장경제화·개방화 가속) WTO 가입으로 중국내 관세·비관세 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시장 개방과 각종 제도의 글로벌화 진전 등 對중국 수출 시장 공략 기회가 확대
·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은 32~55억 달러 증가(KIEP 전망)

- (위협 요인) 한국 경제의 높은 對中 의존도와 중국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따른 한중간 경합 치열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도 우려
· (부메랑 효과)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가속화는 물론,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진입할 경우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중간재, 소재가 오히려 역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됨
· 중국은 경기 과열 우려 확산과 함께, 부실 채권과 통상 마찰, 고실업과 국유기업 적자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함
· (한중 경합 치열) 시장 개방을 통한 선진 기술 습득으로 중국이 '첨단기술의 블랙홀'로 등장함에 따라 한중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어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현재,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의 1등 상품은 69개(11위)로 중국의 735개(2위)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국은 일본의 414개(3위)보다 많음
· (시장 점유율 잠식) 백색 가전과 섬유, 신발은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IT 기기는 물론, 반도체와 완성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앞지르고 있음
· (제3국에서의 경쟁 확대) 중국의 WTO 가입으로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받아온 불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소됨으로써 중국 기업 제품은 물론, 중국 현지에 진출한 외국사 제품의 제3국 시장에서의 경합 품목은 더욱 늘어날 전망

3. 우리의 대응 전략

○ 중국 경제의 위협 요인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으므로, 동북아 경제권이란 큰 틀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고부가·고기술 부문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중간 경쟁 관계를 고려한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
  - ·(세계 시장)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디자인과 설계 분야의 적극 투자 등으로 고부가·고기술 분야의 우위를 유지
  - ·(중국 시장) 현지화 전략의 심화·확대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모색 ➡ 언어 구사 능력은 물론, 중국의 역사와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갖춘 중국 전문가의 육성과, 對중국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상시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

- 직접적 경쟁보다는 효율적인 분업 구도를 모색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
  - ·(분업 협력 방안 모색) 무모한 출혈 경쟁보다는 동북아경제권 형성과 발전 차원에서 한중 및 한중일 산업별·업종별 상호 보완적인 분업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逆부메랑 효과 활용) 우리 기업의 제조업 공동화와 중국의 무역 보복 예방을 위해 한국 진출에 관심을 많은 중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
  - ·(중국 정책의 적극 활용) 서부 대개발과 동북 3성 개발 계획과 같은 정부 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유기업 인수를 통해 중국 경제의 현안 해결과 한국 기업의 가치 제고라는 이중적 효과를 노림

- 정보화의 비교 우위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금융과 유통 등 서비스 부문의 진출을 통해 제조업과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
  - ·(정보화 격차 유지) 중국은 IT 인프라와 정보기술 인력, 정보시스템 유통 등에 대한 정부 통제로 인터넷 환경이 저조 ➡ 이 부문에 대한 한국의 비교 우위와 함께, 콘텐츠 및 S/W 산업의 발전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
  - ·(금융 부문 진출) 중국의 금융·주식 시장은 아직 초보 단계로 개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누적에 따른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위안화 절상 압력도 받고 있음 ➡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금융을 지원